



새로운 바람을 타고 업그레이드!

이번에 미미타로는 학교에서 외국인학생을 지원하고 계신 유리 린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베트남의
외국어대학에서
영어를 전공,
제 2 외국어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 가이드의
아르바이트에서
일본인인 남편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베트남에 부임해 있던 6년 동안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 가족 모두 일본으로 와서 노토가와에서 10년 동안 생활했지요. 그리고 세번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둘째가 초등학교를 졸업, 막내가 3살이 되던 해에 남편의 전근으로 8년동안 호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둘째의 대학 진학을 계기로 막내를 데리고 셋이서 다시 시가로 돌아와 오미하치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은 이제 일본에 안착하고 싶다는 생각과 위의 두 아이들이 일본과 호주의 교육을 받았던 것이 너무 좋아서 막내에게도 일본어를 공부시키고 일본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학교를 통해서 일본과 호주의 교육을 접할 수 있었고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주 교육의 좋은 점은 아이들을 틀에 넣지 않고 독창성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술수업에서 일본에서는 평가의 견본이 있어서 그에 따라 평가하지만 호주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게 해서 기상천외한 것과 서투른 것이 함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무엇이 되고 싶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했지? 라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물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구김살이 없지만 반면에 교육환경이 느슨해서

세심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질 높은 교육이 존재합니다만 빈틈없는 룰이 너무 많으며 아이들은 관리되어 교육환경이 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체행동이 많은 탓인지 주변에 맞추기 위해 여러가지를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양쪽의 장점을 잘 융합시킨 교육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잊지 않고 견고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초중학교에서 영어와 베트남어로 외국인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을 때는 아이들을 학교에 다 맡겼습니다만 다소 육아 경험을 쌓았고 지금은 학교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니까, 모르겠으니까, 라고 방임하지 말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 오는 것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상황을 도와고 부모가 일본문화를 공부해서 아이들이 지내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문화 속에서 커가는 아이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지요. 외국인 부모가 일본학교에 대해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생각 말고 선생님께 묻고 자신의 생각을 찬찬히 전해서 선생님이 아이나 아이의 가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학교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더 열린 즐거운 장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통역이나 번역을 통해 아이들, 부모님들, 학교에 많은 이해를 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자 합니다.

일본 사회에는 훌륭한 전통문화가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것도 받아들여 부모와 학교, 그리고 이 사회도 모두 업그레이드 합시다!

~ 영 케어러란? 가족 전체를 지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가현 어린이 청소년국입니다. 시가현에서는 「어린이 · 어린이 · 어린이」를 키워드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현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 케어러를 알고 계십니까? 이는 원래 어른이 해야 하는 집안일이나 가족의 돌봄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케이스 5
집안일이나 어린 형제를 돌봄	고령의 가족을 보거나 간병을 함	장애가 있거나 병이 난 가족을 돌보거나 간병함	가계를 도우기 위해 방과 후에 일하고 있음	통역 등 가족의 의사 소통을 담당하고 있음

(일러스트 ©어린이가정청)

어린이에게 있어서 「집안일을 도우는 것」은 성장과 연결되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장과 어울리지 않는 막중한 책임과 부담이 지속됨으로써 심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린이다운 시간을 보낼 수 없어 장래의 꿈이나 진로를 포기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가족의 서포트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괴로워도 자신의 SOS를 알아채지 못하고 상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현에서는 이러한 어린이들과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전체 지원」을 키워드로 영 케어러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NPO 법인을 통해서 상담창구나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외에도 영 케어러 · 코디네이터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의 어린이 중에는 언어의 벽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참거나 가족의 통역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어린이답게 지역이나 집에서 「놀이」 「배우기」의 시간이 보장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지원합시다. 어린이는 사회의 보물입니다. 고민중인 어린이, 가정은 꼭 상담해 주십시오. (영 케어러 · 코디네이터 드림)



고코론 다이얼

어린이 · 청소년, 보호자의 고민거리를 들어드립니다.

☎ 077-524-2030

오전 9:00 ~ 오후 9:00 (12/29 ~ 1/3 제외)

오후 9:00 이후는 24시간 어린이 SOS 다이얼로 연결됩니다.

~각 지역 상담창구의 안내~
받으시려는 지원 · 서비스에 대해
문의해 주십시오.









어린이가 맘껏 웃을 수 있는 세계로 ~평소와 조금 다른 장소에서~



시가현에는 어린이들을 서포트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영케어러 지원단체」(★)는 어린이들이 집안일 등으로 힘들 때, 한숨 돌리고 싶을 때, 상담하고 싶을 때에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어린이식당」은 어린이들이 무료, 혹은 저가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역의 어른들도 참가할 수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바쇼(내 자리)」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번 놀러가 봅시다!

단체명	내용	개최장소	기간	문의처
NPO 법인 어린이소셜워크센터	★영케어러 지원 이바쇼·도시락(배식), 캠프	오츠시 칸논지 9-8	매일	077-575-4378 
NPO 법인 세리카와노캡파	★영케어러 지원 이바쇼·온라인 상담실	히코네시 가와하라 2-3-4	매일	0749-20-9084 
다문화공생지원센터 SHIPS	다문화 어린이식당	쿠사츠시 쿠사츠 1-13-12	4 토요일	077-561-5110
강짱노 치이사이 이에	다문화공생지역교류 회·어린이식당	오미하치만시 아즈치초 쵸라쿠지 956-2	2 달에 1 번	090-3708-3315 
NPO 법인 안차데라	10 대의 이바쇼· 어린이식당	쿠사츠 시내	1,3,5 토 요일	
파라데이로	이바쇼·어린이식당	아이쇼초 애치가와 13-2	3 금요일 석식	090-4030-1492 
오츠 오루타나티브 스쿨 토라이언후	프리스쿨·이바쇼 수채화교실	오츠시 하마오츠 4-3-25	화·수· 금요일	050-5374-0311 
차일드 비렛지	어린이와 어른의 서드플레이 (이바쇼)	오츠시 히에이다이라 2-3 9-4	4 토요일 10~16h	email chimihirano@gmail.com

• 미리 연락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 좀더 많은 어린이의 이바쇼나 식당, 놀이장소가 있습니다 ♪

- ◇ 놀기·배우기 오미 어린이 식당
(시가현내의 어린이식당)



- ◇ 『시가 어린이체험학교』



「연결」, 「생활·창작」, 「자연」, 「마을 산·논」,
「문화예술·역사」의 다섯 테마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미타로 정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미타로

◇ 세츠분사이 2월 3일(토)

귀신을 쫓고 복을 부르는 콩뿌리기
행사가 각지에서 실시됩니다.



미나구치진자 코카시 미나구치초 미야노마에 3-14

다치키진자 쿠사츠시 쿠사츠 4-1-3

타가진자 이누카미군 타가초타가 604

히요시다이사 오츠시 사카모토 5-1-1

◇ 사기초마츠리

2 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오곡풍요를 비는 축제

3월 16일(토) 13:00 ~ 17:30

3월 17일(일) 10:30 ~ 22:00

히므레하치만구 오미하치만시 미야우치초 257

◇ 벚꽃 시기 3월하순 ~ 4월상순

※시가현내의 벚꽃 명소※

미이데라 오츠시 온쥬지초 246

비와코쥬스이 오츠시 간논데라 미이데라초

다치하라사쿠라공원 모리야마시 카사하라초 683

쥬라쿠노사토 코난시 도지 4-4-1

히코네성 히코네시 콘키초 1-1

호코엔 나가하마시 코엔초

카이즈오자키 다카시마시 마키노초 카이즈

◇ 기보가오카 봄 캠프

자연체험과 야외활동을 즐기자!

3월 10일(일) 9:30 ~ 16:00

시가현 기보가오카문화공원(가모군 류오쥬 크즈시 1178)

요금 : 3세 이상 1000엔, 15세 이상 1500엔

신청 : 1월 13일부터 이메일로

참가자 전원의 우편번호·주소·TEL·성명(후리가나)·

성별·연령·메일어드레스 기입.

email : e-yagai@kiboupark-shiga.or.jp



미미타로 다음 호는 4월에 발행 예정입니다.

미미타로 뉴스

◇ 외국인을 위한 합동전문상담회

재류, 노동, 생활, 인권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면 상담. 통역 있음. 1인 30분.

일시 : 2월 26일(월) 13:00 ~ 17:00

장소 : 오츠 비와코합동청사

5층 공용회의실

주최 :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

예약 필수

혹은 시가외국인상담센터 Tel: 077-523-5646



◇ 신종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한 알림

무료 접종 가능기간은 3월 31일까지 입니다.

◇ 에이즈 무료상담·검사에 대한 알림

• 익명 검사 가능합니다.

• 에이즈 이외에도 매독, B형간염, C형간염 검사도
가능합니다.

• 1 ~ 2시간으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장소 : 현내 보건소(오츠시 · 쿠사츠 · 코카 ·
히가시오미 · 히코네 · 나가하마 · 다카시마)

• 전화예약이 필요합니다.

문의 현내 보건소(일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시가외국인상담센터로
전화주십시오. Tel: 077-523-5646



◇ 확정신고는 2월 16일(금) ~ 3월 15일(금)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했거나 주택용자가
있는 경우 등 공제액의 정정이 있거나
사업소득자, 복수의 장소에서 소득이 있는
분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봄은 입학 시즌

4월에 초등학교·중학교의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말경에 입학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각
학교에서 안내하는 입학 설명회(2월경)에 참석하여
준비를 하고 4월의 입학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외국인 아동·보호자를 위한 동영상

「안녕 ! 오늘부터 친구」 「일본

소학교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가외국인상담센터 (시가현국제협회 내)

Tel: 077-523-5646 Fax: 077-510-0601

email: mimitaro@s-i-a.or.jp